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8월 11일(금)
(음력 6월 20일)
Пятница
11 августа 2017 г.
№ 31(11674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마리인스키극장의 오케스트라, 사할린에서 멋진 무대

지난 6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주정부 청사 앞마당에서 마리인스키극장의 교향오케스트라(지휘자 왈레리 게르기에브)의 공연이 펼쳐졌다. 사할린주 형성 70주년 기념 행사로 열린 공연은 섬주민들에게는 훌륭한 선물이 되었다. 60여 명의 오케스트라 연주는 열린 마당에 모인 5000여 명의 관중들을 아름다운 클래식 세계로 끌어들였다. 한 마음이 된 관중은 게르기에브 지휘자를 비롯한 연주자들을 뜨거운 박수갈채로 환영했다. 바이올린 솔리스트 16세의 다니엘 로자코위츠(스웨덴)의 연주는 감동을 주어 큰 사랑을 받았다. 게르기에브 지휘자에 따르면 이 청년은 세계 영재 바이올린 연주자 중 하나라고 한다. 이날 오케스트라는 멘델스존, 브루흐, 차이콥스키 등 명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했다. 현재 오케스트라는 러시아 극동지역, 아태지역을 순회공연 중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일정을 마치고 사할린에 온 음악가들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공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연 이후 이들은 중국 하얼빈으로 떠났다. 사할린공연 주최 측은 앞으로도 게르기에브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세르게이 크라스노우호브)

사할린 선거위원회, 7기주 두마의원 후보 등록 마감

지난 5일(토) 구역별1석을 뽑는 주 두마의원 후보 등록기간이 마감되었다. "출마를 원하는 후보 98중 83명이 등록되었다."고 사할린주선거위원회 워토리아 체르카소와 위원장이 전했다. 앞으로 이들은 14석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등록된 의원후보 83명 중 6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나머지는 정당 소속 후보들이다. <러시아연방 공산당> 14명, <예지나야 러시아(러시아 통합당)> 12명, <스프라웨들리야아 러시아>당 11명, <사회정의 공산당> 11명, 자유민주당10명, <러시아 여성을 위한>국민의당 8명, <파트찌야 켈라>당 5명, <야블로코>당 3명과 <공무니스트 러시아>공산당 3명이 대표한다. 8월 4일 7기 사할린주 두마의원 선거에 대한 당 등록이 마감되었다. 주두마의원 선거에는 10개의 정당들이 참여한다. 정당들은 러시아연방 공

산당, <러시아 여성을 위한>국민의당, <사회정의 공산당>, <예지나야 러시아(러시아 통합당)>당, <야블로코> 러시아통합민주당, <러시아 공무니스트 공산당>, 러시아 자유민주당, <스프라웨들리야아 러시아>당, <로지나>당, <파트리오트 러시아(러시아 애국자)>당이다. 8월 9일(수) 사할린주선거위원회에서 사할린주 두마의원 후보 홍보에 대한 무료 및 유료 방송 시간과 신문 후보 지면 배분이 있었다. 공식적 의원후보 홍보활동은 8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사할린주에서 주 두마의원 선거는 2017년 9월 10일 있을 것이며 선거는 혼합선거제도로 진행된다. 의원 28명 중 14명은 당소속으로, 14명은 단일 좌석구들로 선출된다. 제7기 주 두마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사할린주, 다가올 난방 시기 준비 66%로 평가

일전에 다가올 겨울준비 문제로 주정부에서 소집된 회의에서 정부 내 관련 부서, 동력산업 기업체, 지방자치체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사할린주 공공주택경리부 드미트리 자이체브에 따르면 올 겨울 준비에 대한 작업은 사할린주 내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보일러 224개를 수리할 계획으로 이미 70%를 수리했고 난방망 19킬로미터, 수도관은 약 26킬로미터를 교체했다고 보고했다. 난방시기 준비에 대한 평가는 중앙난방시설은 78%, 예비 디젤-발전기는 80%, 주택은 70%로 보고 있다. 주 내에는 45일을 쓸 수 있는 연료를 확보 중이다. 창고에는 이미 석탄 2만6000톤(계획 9만3000톤)과 액체연료 1000톤(계획 2500톤)을 배치했고 주 내에 모든 난방시설에는 백업 전원 공급 장치가 설치되었다. 회의에서 각 구역의 시장들에게는 겨울준비에 대한 작업 전체를 직접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단신

사할린주, 우수 숙련 기능인 콩쿠르 우승자 발표

전국 기술직종에 따른 숙련 기능인 콩쿠르의 사할린지역 단계의 수상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올해는 공공경리주택 관리기관들에서 종사하는 용접기사, <사할린에네르고>회사의 전기망 설비 전기기사, 철도 설치기사들 28명은 사할린주 내 여러 구역을 대표하여 숙련 기능인 콩쿠르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론과 실기 부문에서 경쟁했다. 용접기사는 용접기기를 가지고 일정 장소에서, 전기기사는 변압기 화재처리복구 작업에서, 철도 설치기사는 철로 교체로 경연이 이뤄져 전문 감정가들로부터 평점을 받는 방식이었다. 최우수 용접기사는 <사할린공공콤파니>회사 직원 빅토르 오졸린, 최우수 전기설비기사는 이명식, 우수 철도 설치기사는 스타니스슬라브 다워드브(포로나이스크), 알베르트 지노비예브와 체니스 스로즈네브(홈스크)가 선발되었다. 시상식에 사할린주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이 참가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사할린 및 쿠릴 연금자, 곧 일시 보조금 5000루블리 지급받아

사할린주 형성 70주년과 관련하여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 지시에 따라 사할린 및 쿠릴 내 연금자들이 일시 지원금 5000루블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일시 보조금은 사할린에 상시 거주하는 연금자 16만7000여명이 받게 된다. 일시 보조금은 8월에 지급될 것이다.

사회복지부의 소식에 따르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금자들 신청서를 요하지 않는다.

그외 추가로 <전쟁시기의 아동들>(1923년 6월- 1945년간 출생 러시아 연방 및 구소련 국민), 현재 근무하지 않은 <노동 베테랑> 또는 <사할린 노동 베테랑> 6만여 명에게는 일시지원금 2500루블리가 지급된다. <전쟁 아동들>은 따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방 노동 베테랑>과 <사할린 노동 베테랑> 경우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 사회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조건으로는 사할린주 내에 상시 거주해야 하고 해외 거주권이 없어야 한다.

사할린한인동포 사회단체들, 사할린한국 한인회와 협력서 파기

2014년 1월 15일 사할린주한인회·주한인노인회·주이산가족협회는 사할린한국한인회(그 당시 회장 손병덕)와 한민족문화·전통·풍습 계승에 대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8일(화) 사할린동포단체들이 위 협력협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사할린한국한인회(회장 현덕수)에 전달했다. 원인은 협약내용이 유지되지 않고 위반되었기 때문이라고 사할린주한인회 측에서 밝혔다.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한인노인회 김홍지 회장, 주이산가족협회 박경춘 부회장이 이 파기문서에 서명한 걸로 알려졌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제4회 일제 강점기 сахалин 징용 희생자 추념식

<선대들이 겪은 고난의 세월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지난 6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공동묘지 중앙입구 근처 세워진 사할린한인 희생자 합동추모비 앞에서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4회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희생자 추념식이 진행되었다. 3년 전에 이 곳에 추모비를 세운 이래로 이 행사는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최하고 있고 사할린한인역사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있다. 그동안 위령제는 항상 스님들이 참가하여 거행했기 때문에 제삿상도 차리고 여러 의식도 진행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님들의 참가가 이뤄지지 않아 추념식은 보다 간단했다. 추념식을 진행하기 위해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기종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한국에서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할린을 찾았다.

전통적으로 추념식 사회자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리인수 사무총장이 추모비 건립 배경을 상기시켰다. 건립에 대한 자세한 경과보고는 사할린한국한인회 현덕수 회장이 했다. 추념사를 한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기종 상임공동대표는 일제 강점기 희생자들에 대한 위토의 말을 전하고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동포들은 누대에 걸쳐 이곳 사할린에서의 삶을 이어가겠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과거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대가 거듭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선대들이 겪은 그 고난의 세월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회장 역시 "지난 세기에 일본인들에게 침략을 받고 나라를 잃은 우리 선조들은 사할린 지역으로 끌려와서 탄

광과 토목사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세월이 흐른 동안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타국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영혼들은 지금 이곳 사할린 공동묘지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사망한 우리 동포



1세 분들의 영령들이 모국으로 돌아가 그리운 모국의 영령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했다.

해외연수의 일환으로 추념식에 참석한 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도 이 자리에서 소감을 나누었다. 정 의원은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라 이 추념식에 참가하기로 했으며 공동묘지도 좀 돌아보니 순간순간 '우리가 좀 더 일찍 왔으면'란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추념식은 헌화로 마무리되었다.

(배순신기자)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18" 제작 모금 시작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18'을 제작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을 8월 8일(화)부터 시작하였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 1세들이 기일, 생일, 농사일, 손없는 날 등 일상생활을 음력으로 지내지만,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작하였고, 올해로 다섯 번째 제작이다. 러시아 달력에 음력과 절기, 한국의 명절 및 국경일을 표기하고, 짧은 러시아어 설명을 넣어 동포 3, 4세들도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공감하기 위한 취지로 온라인 홍보와 모금을 통해 제작해 왔다. 2016년의 경우 같이가치with kakao를 통해 댓글응원과 공유, 직접기부 등으로 1,919명이 참여했고, KIN 후원계좌를 통하여 시민들과 재외동포, 일본인들도 모금에 동참해 주었다. 올 1월에는 마카로프, 우글레고스크스크, 보쉬니아코보 등 사할린 각지를 다니며 달력을 동포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사할린 동포들의 구술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과 한국을 잇는 작은 선물이자 시민의 힘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활동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달력제작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참여(10월 7일까지)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42790>

2) KIN 모금 계좌를 통해 참여

☞ 우리은행. 1006-301-227783. KIN(지구촌동포연대)

(KIN 제공)

정정합니다

* 새고려신문사는 8월 3일 저녁 9시 30분 경 김해시 의원 사할린 일정을 맡은 이희영 씨로부터 2017년 7월 28일자 새고려신문 2면에 게재된 <김해시 지방지치의원 단, 사할린한인 사회계 관계자와의 공식 만남 무산>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5페이지 분량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에 편지 내용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 세 가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1. "여행사 관계자 현덕수 사장의 직원"이라는 문장에서, 사할린

여행 일정을 맡은 이희영 씨(한국 국적)는 본인 스스로 현 회장의 직원이 아니며,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힌.

2. '박해룡 씨가 여행사 측에서 받은 일정 프로그램'이라는 문장에서, '박해룡 씨가 김해시의회 측에서 받은 일정 프로그램'으로 확인됨.

3.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상태로 사할린에서 지낸 현덕수 씨'라는 문장은 '현재 러시아 사할린에서 무국적 영주권자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로 체류하는 현덕수 씨'로 정정함.

(본사 편집부)

이 모 저 모

사할린 납호인 물의 신을 달래다

사할린 납호인들은 예부터 송어들의 첫 진입을 기념하는 <테니구> 명절을 기렸다.

이 전통예식은 국제 소수민족의 날에 맞추어 올해 노글리키의 <치르운브드>촌에서 거행되었다. 멋진 민족 명절을 맞아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방문객들이 모여들었다. 전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툼> 강가에 모두 모인 가운데 이 자리에 노글리키시의 세르게이 로마뉴첸코 시장과 주정부 북방소수민족관리국 블라디미르 폴로마추크 국장이 환영사를 했다.

행사장에서 올해 활동 35주년을 맞이하는 유명한 <케흐> 소수민족 앙상블이 명절을 장식했다. 명절의 주요 행사인 물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예식이 치러지는 가운데 <케흐>앙상블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 바가 노래를 불렀다. 특별한 예식의 음식으로 지역 어부들의 가호를 빌었는데 제물로 바치는 음식은 생선 가족을 젤리 형태로 끓여 열매를 곁들여서 준비하여 주문을 외우고 음식을 물의 신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을 위한 보트 경주, 전통 놀이, 씨름, 활쏘기, 투척, 지팡이로 건너뛰기 등의 경기들이 조성되었다. 경기 후 참석한 사람들은 생선 수프와 납호의 요리로 기운을 북돋았다.

Сахалинские нивхи задобрили духа воды

Сахалинские нивхи отметили праздник Тени Гу, который испокон веков посвящается первому ходу горбуши.

В этом году традиционный обряд в ногликском селе Чир-Унвд приурочили и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Красив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собрал не только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но и множество гостей из окрестных сел. Чир-Унвд практически опустел: все его 300 жителей собрались с гостями на берегу реки Тымь. Сельчан и гостей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мэр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Сергей Романютенко и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нных и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Поломарчук.

Украш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знаменит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Кех». Коллектив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 35-лет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А самым завораживающим момент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 безусловно, обряд кормления духов воды. Его провел солист ансамбля «Кех» Андрей Колесников.

Задабривают покровителей местных рыбаков особым ритуальным блюдом. Он готовится из кусочков рыбьей кожи, которые вываривают до состояния желе, добавляют ягоду. Такой кашцей (на нивхском он называется «моос») с особыми заклинаниями и угощают духа воды.

Затем наступила очередь обширной спортивной программы. Зрители состязались в гонках на лод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грах, борьбе,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метании гарпуна и бегу с палкой по пересеченной местности

После состязаний люди могли подкрепиться блюдами нивхской кухни и аппетитной ухо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заботились и о выставке предмет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다자녀가구 자가용 구입에

1 백만 루블리 혜택 제공

다자녀가구가 일시불 자동차 구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7월부터 사할린주에서 사회적

혜택 제공으로 다자녀가구를 위해 결정된 새로운 추가 조치라고 지역 사회복지부 홍보실이 밝혔다.

자동차 일시불 구입 시 다자녀가구에는 1백만 루블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자동차 유형은 10년 전 생산된 경량 미니버스로서 운전석을 포함해 6 좌석이 있어야 한다.

혜택을 받는 다자녀가구의 자녀들은 18세이하 5명 이상의 자녀, 대학이나 그외 고등교육을 받은 2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을 말한다.

결혼 전 자녀, 입양 자녀로서 가정에서 살며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일련의 조건이 주어졌다. 입양 자녀들은 모두 사할린주의 출생자여야 하고 가정에 자가용이 없거나 가족 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자녀가구라도 자녀가 부모의 권한 밖에 있거나 자녀가 특수 국가보호시설에 있어 가정에 부재하는 경우엔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 사회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도록 한다.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с 5 и более детьм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 1 млн рублей на покупку автомобиля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редств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емьи, имеющие пятерых и более детей. Нова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установле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июля 2017 года,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соцзащиты.

(8면에 계속)

문학의 밤: 강석경 한국파견작가와의 만남

'그 어느 유적지보다도 한인들의 눈물과
땀과 삶의 이야기를 탐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사할린을 보게 되었다.'

8월 8일 18시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의 파견작가로 사할린에 머물고 있는 강석경 소설가와 만남이 있었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새고려신문사 주최, 사할린한국교육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만남의 자리엔 양 세르게이 작가를 비롯해 사할린국립대 교수와 사회유지계층의 여러분과 학생이 참석했다.

강석경 소설가는 1974년 문학잡지 '문학사상' 신인상부터, 1986년에는 제6회 목원문화상, 제10회 오늘의 작가상, 2001년에는 제8회 21세기 문학상, 2013년에는 문학상으로서 명성이 높은 제16회 '동리문학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청색시대', '가까운 골짜기', '세상의 별은 다 라사에 뜬다', '내 안에 깊은 계단', '미불', '신성한 봄' 등 다수와 중단편 소설집은 '밤과 요람', '숲속의 방'이 있고 산문집으로는 '일하는 예술가들', '인도 기행', '능으로 가는 길', '이 고도를 사랑한다' 등 많은 작품이 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작가와의 만남은 기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강 작가의 작품은 현실 속에서 강한 자아의식을 가진 인물들의 고통과 그 속의 진실과 삶의 본질에 대한 탐색을 그려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작가는 자신의 얘기를 시작했다.

현재 경남 신라의 고도인 경주시에 살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방적인 신라의 정신이 곳곳에 깃든 경주를 강 작가는 특별히 좋아한다고 했다. 사할린에 머문 지 2개월이 지나는 동안 사할린에 대한 추억을 소재로 글감을 찾고자 강 작가는 사할린의 남부 코르사코브로부터 시작해 여러 곳을 탐방하고 북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까지 방문했다고 한다. 무수한 탐방에도 허전한 느낌을 갖던 차에 사할린에서 경주 의원과 만나게 되어 그들의 일정을 따라서 가고자 했던 비코브탄광촌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은 초창기 한인들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녹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비코브탄광의 넓은 캠드 안에는 숫자들이 쓰여있었는데 들어갈수록 숫자의 수가 줄어들어 마침내 2라고 쓰인 곳까지 가서 1을 가려니 다음은 지하강도로 이어져서 끝을 알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어둔 강도를 등지고 나올 때 강도 끝 부분에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란 낙서들을 한글로 썼다는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강 작가는 당시 한인들의 절절한 아픔과 그리움이 피부에 와 닿았다고 했다. 나라가 약해서 국민을 돌보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찾기를 꺼리는 나라. 올해 광화문 촛

불시위에 떠오른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를 언급했다. 약 425년 전 임진왜란 때도, 약 107년 전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을 때도 서민들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한다."이게 나라냐?"

강 작가는 일본인들의 본국 송환 시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을 비롯해 일본인과 내연관계자까지 포함해 송환을 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이 국가로서 따라 잡지

의 고향은 조선이다. 우리는 꼭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2,3세대가 잘 살건 못 살건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임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사회는 유교적 관념과 사고방식, 사회적 구조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다 한국 여인들의 '충향이 콤플렉스'를 꼬집어 비판했다. 신분을 초월해 금지된 사랑에 투사처럼 몸을 던지고,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한 남자만을 바라고 사랑하던 일편단심 민들레 사랑이 그 남자가 떠날 때는 험박과 증오로 양탈을 부리는 증상이다.

그러나 사할린에 와서 이곳 사할린한인들은 무언가 달랐다는 것이다. 광활한 러시아의 자연을 배경으로 살면서 튼튼한 원목처럼 곧고, 신사적이며,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들은 자존감이 강하고, 대답하며,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보았고 그런 가운데도 자유롭고, 너그럽고, 개방적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강 작가는 국가와 국적, 민족 정체성을 너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 좋은 곳이라 말한다. 한인 1세대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토대로 2,3 세대들은 디아스포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척박한 타지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내어 정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사할린은 볼 것 많은 유적지는 아니지만 한인들의 눈물과 땀과 삶의 이야기를 탐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사할린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우글레고르크 재방문 계획을 밝혔다. 초창기 한인들이 모여 살았던 한인 탄광촌은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보여 재미있고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많은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간이 되어 참석자들 가운데 질문과 발언이 주어진면서 그중에는 한 민족의 정체성, 국적, 영주귀국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

"여러 민족 중에 조국으로 가장 돌아가고 싶어하는 민족은 한 국민족이다."또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때부터 우리에게 우리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는 모국에 대해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운운하기도 부끄럽다. 자녀들은 모국에 대해 말도 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의 영주귀국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다." 그중 한 참석자가 글을 적어와 읽어주었다. 그 일부를 적는다.

"어느 나라가 자기 민족을 1945년 이전과 이후 출생으로 나누어 본국으로 데리고 가는가?..... 25년 전 60-70세 연세로 영주귀국한 1세대들은 이제 85-90세가 되었다. 이제는 혼자서 움직이거나 걸어다니기도 어렵다. 몸에 병이 들어 앓느라 홀로 일어나기도 힘들고, 밤에 목이 말라도 물 가져다줄 사람도 없고, 도와달라 부를 사람도 없고, 이웃을 부르자니 이웃사람의 형편은 더 비참하다. 조국으로 흔쾌히 돌아갔던 1세대들이 다시 자녀들이 있는 사할린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부모들을 업수이본 송환정책.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정책에 순응하는 국가여 대답해보라!"

반면, 러시아에 잘 정착하여 러시아의 한인으로서 폭넓은 삶을 펼쳐가며 한국인과는 달리 러시아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강인한 한인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편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자제적으로 형성하여 강하고 능력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는 것이다.

강 작가는 조용히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의 일정을 포함해 듣고, 보고, 느낀 사할린의 모든 것을 언어의 실로 엮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강 작가의 몫이다. 후에 쓰여질 작품에 우리는 벌써부터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기다리게 된다.

짧았던 작가와의 만남은 배포된 작가 소개지에 강작가의 사인회로 마무리되었다.

(박혜신)

인하대, '2017년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 파견/실습 지원 사업' 선정

국립국어원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2017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파견·실습 지원 사업'에 인하대 언어교육원 연구팀이 선정됐다.

인하대 언어교육원은 국내 학부,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학생 20명을 뽑아 교육 실습을 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인하대에서 2주간 사전 교육을 받고 오는 9-10월 러시아 사할린 한국교육원에 파견된다. 지원 예산은 3억2천여만 원이다.

교원 양성 사업은 국외 현장 실습을 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교육 경력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책임자인 최권진 교수와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안명철 교수, 한성우 교수 등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 교수는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는 예비 한국어 교원에게 국내의 현장 체험과 실습 기회를 제공해 교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인하대와 사할린 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제공)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정부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

일제 치하에 강제 동원되면서부터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파헤쳐진 사할린 한인들. 그들은 해방 후 일본에게서 버림받았고, 소련으로부터는 차별받았으며, 유일하게 믿었던 조국에서조차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고국이 뭐고 고향이 뭐라고, 그들은 수십 년간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채 무국적으로 지내면서까지 귀향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동포들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그건 결국 이 나라가 더 이상 그들의 고국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번에 진행된 국적 확인소송은 '역사에 희생당한 국민에게 과연 조국은 무엇이고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결연한 외침이었고, 이제는 한국 정부가 그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지금껏 정부는 사할린 한인 문제의 책임을 일본에만 떠넘겨왔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은 것도 아니고, 이른바 일본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만 만족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적십자사에 의해 공동으로 실행되어 온 '한인 1세에 대한 영주귀국 사업'도 내년이면 종결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사할린 한인 문제를 놓고 일본과 새로운 협상의 틀을 형성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본의 지원과 협조마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많은 한인들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적 힘을 발휘하여, 과거 한일협정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다 포함해 과거청산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향에서 새 틀을 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씩 순서를 밟아 문제를 풀어갈 때만이, 사할린 한인과 관련해 오래도록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사할린 한인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비로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역사에 희생당한 국민을 끌어안지 못하는 조국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 사할린 한인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그에 대한 청산 약속이 명시되지 않았다.

맺는 글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사할린 한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란 어렵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지 않으려면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먼저 그들이 일제 식민 지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사할린에 간 한인들이 꼭 강제 동원된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일본이나 연해주를 통해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당신들은 왜 한반도를 떠나 그 먼 곳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В предыдущих статьях мы с вами рассматривали в основном внешние отношения Кореи начала XVII в. Тем не менее, мы упоминали о той непростой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сложилась на внутреннем политическом поле. Интриги и заговоры были обычным делом, в итоге привели к свержению вана. В чем же были особенности дворцовой борьбы?

Как уже говорилось, ван Сонджо скончался в 1608 г., престол унаследовал Кванхэгун.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 прославился во время Имджинской войны, знатностью (по матери) он уступал своему младшему брату Ёнчхану. Активно против Кванхэгуна интриговала мать Ёнчхана – вдовствующая королева Инмок. Именно Инмок и Ёнчхан стали основным центром оппозиции Кванхэгуну.

Кванхэгуну поддерживала так называемая партия «пугин» (северяне), представлявшая собой объедин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группировок. Считалось, что его возглавляли ученые Чо Сик и Со Гёндок. В процессе спора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бора наследника престола бывшие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и разделились, сформировав группировки: «собук» (малую северную), поддерживавшую Ёнчхана, и «тэбук» (большую северную), выдвигавшую Кванхэгуна.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верх одержала группировка тэбук, которая и возвела на ванский престол Кванхэгуна.

Группировка тэбук считала основной и главной целью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разрушенного войной хозяйства, поэтом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овела работы по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земельных реестров, произвела замену натуральных поставок единым налогом (закон Тэдонбоп), начав со столичной провинции Кёнгги, приступила к ремонту разрушенных укреплений, обновлению вооружения и подготовке войск.

Кроме того, ученые Хо Джун и Чон Джак составили энциклопедию «Сокровенное зеркало восточной медицины» (Тонъый погам) (1596–1610). Эта книга, основанная на сведениях о даосском искусстве врачевания, суммировала и подняла на бол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едицинские зна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ранним периодом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чалось возрождение культуры страны – были переизданы «Обзор всех земель 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окровенное зеркало прав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а», «Великое уложение об управл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ом», «Основы музыкальной граммоты», «История Корё», «Полет дракона в царственных небесах», «Правила повед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мя основами», а на горе Чоксансан в городе Муджу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новое хранилище династических историй «Силлок».

У подножия горы Инвансан недалеко от Западных ворот столицы (Содэму) в 1617 г. был построен дворец Кёндокун. Кванхэгун также планировал перенести столицу в Кёха (Пхаджу), но осуществить это не удалось.

Наряду с развитием культуры, наук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страны после войны, Кванхэгун предпринимал мер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кратить борьбу враждующих фракций. Он попытался уравнять в долж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группировок тэбук и намин (южная), повысив как «южанина» Ли Воника, так и «северяна» Чон Инхона, Ли Иджома, Ли Санхэ. Чувствуя угрозу со стороны своего единокровного брата, принца Имхэ, и матери принца Ёнчхана королевы Инмок, он в 1613 г. заточил в темницу и лишил статуса королеву Инмок, убил принца Ёнчхана и расправился с их сторонниками. Этот инцидент получил название «преступление года кечхук».

В 1611 г. по предложению Чон Инхона из мемориальных храмов Ли Онджока и Ли Хвана были убраны таблички конфуцианских мудрецов, почитаемых «южной» группировкой, а протестовавших против этого ученых исключили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нгюнгван (первый и важнейш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 Кореи). В целом,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успешное проведение Кванхэгуну политики усиления страны и укрепления монархической власти, он не встретил понимания и поддержки своего окружения.

В 1623 г. Ким Нью, Ли Гви, Ли Гваль и другие деятели запад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соин) сместили Кванхэгуна и объявили ваном внука Сонджо принца Нынъяна под именем Инджо (1623–1649). Это событие получило название «Реставрация Инджо». Кванхэгун и группировка тэбук были обвинены в измене Минам, свержении королевы Инмок и убийстве принца Ёнчхана, за что Кванхэгун был сослан, а его сподвижники казнены.

Вскоре внутри группировки соин начались разногласия, а затем Ли Гваль, недовольный оценкой его заслуг, поднял восстание в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ой Пхёнъян и дошел до Сеула, однако в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Пхёнъян преследовавшие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войска подавили выступление. Эта ситуация еще более усугубила напряженную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после мятежа Ли Гваля, Ли Воник и другие члены юж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развернули движение за «почитание и возвышение конфуцианских ученых» и стали настаивать на проведении проминской и анти-маньчжурской политики,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Корея разорвала отношения с императором Абахаем. Чем закончилась эта политика, мы рассказывали в предыдущей статье.

Когда в 1649 г. скончался ван Инджо, на трон под именем ван Хёджона (1649–1659) взошел принц Понним, вернувшийся из цинского (маньчжурского) Китая, где он находился в качестве заложник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Литературное краеведение

НА САХАЛИН ЗА ВДОХНОВЕНИЕМ

8 августа в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прошла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ей госпожой Кан Сок Гён. Гостя из города Кёнджу рассказала о своих сахалинск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и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За два неполных месяц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е госпожа Кан побывала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Ногликах и Быкове, а однажды даже вышла с новыми знакомыми в море, чтобы почувствовать всю силу природной стихии, кормящей человек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его современном виде – главный интерес литературных устремлений писательницы, поездка которой на Сахалин состоялась благодаря Комитету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У себя на родине Кан Сок Гён хорошо известна читателям. Ее дебют состоялся еще в 1974 году, когда писательница представила рассказы «Корни» и «Открытые игры». Позже по сюжету «Лесной комнаты» режиссер О Бен Чоль в 1992 году снял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Сегодня в багаже Кан Сок Гён несколько романов и рассказ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Лоло, который бывал в Индии» (1994). Как ранее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Индии госпожа Кан написала книгу, также она планирует воплотить свое знакомство с Сахалином в отдель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герои которого будут придуманы не воображением, а взяты из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Именно за вдохновением отправилась в поездку на Сахалин Кан Сок Гён.

По словам писательницы, больше всего ее волнует судьба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островных корейцев. Их характер попытается она описать в своей сахалинской книге. Имея возможность

выбора других мест для поиска новых литературных идей, Кан Сок Гён после долгих сомнений

предпочла все же Сахалин. Уединение, которое можно най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ли в островных поселках, противостоит роскоши других более известных на земле городов. Например, в Риме, по признанию госпожи Кан, ее бы несомненно отвлекали величественн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строения, но на острове можно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своей книге.

Для справки: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е признание Кан Сок Гён пока ограничено переводами н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Роман «Ближайшая долина» (1997) издан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 «Серии азиатских писателей», а две истории – «Дни и мечты», «Лесная комната» – вошли в сборник прозы корейских писательниц «Слова прощания» (1989).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포토에세이 공모전 공모



고려인 청년 협회 'ETKO'는 고려인 청년의 문화적·정신적 가치에 대한 상호 교류, 자신의 역사에 대한 관심 자극과 이해 확대를 목적으로, 포토에세이 공모전 『고려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에세이 주제

- 나의 조상의 업적, 러시아 문화에 대한 고려인의 영향,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나의 역할

참가 자격, 접수 방법

- 나이 16세~35세, 극동지역(사하공화국 제외) 거주 고려인 청년
- 2017.7.1 (토) – 8.31 (목) 이메일 (etko.vl@mail.ru) 접수

※ 제출하는 포토에세이는, 향후 언론 게재 및 책자 제작 등에 대한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에세이 작성 요령

- 페이지 규격 – A4용지, 페이지 방향 세로, 쪽 여백(상하좌우) 각각 2cm
- 에세이 제목
 - 글꼴 : TimesNewRoman, 14포인트, 굵게, 가운데 정렬, 대문자, 아래 한 칸 비움
- 작가 성명(폴네임), 도시명
 - 글꼴 : TimesNewRoman, 14포인트, 굵게, 기울임, 가운데 정렬
- 내용
 - 글꼴 : TimesNewRoman, 14포인트, 가운데 정렬, 첫 줄 들여쓰기 1.25cm, 줄간격 1.5, 페이지 표시 없음
 - 최소 5페이지 이상(사진 제외), 문서 작성 프로그램 : MSWord(파일 확장자 *.doc, *.rtf)
- 첨부사진 최소 5장, 모든 사진에 서명(워터마크) 필수
- 러시아어, 한국어 사용 가능
- 응모원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결과 발표 및 수상 내역

- 2017.10.31(화), 1등 (\$1,000) 1명, 2등 (\$700) 2명, 3등 (\$500) 3명

기타 문의사항은 장 나테즈다 고려인 청년 협회 부회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7 (964) 443-10-90, etko.vl@mail.ru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Участники 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рума выразили «глубок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ми Пхеньяна

Министр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Азиатском региональном форуме, завершившемся 8 августа в Маниле, выразили «глубок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ракетными провокациями. Они призвали Пхеньян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выполнять все положения резолю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Данный призыв содерж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вавшего на форуме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Филиппин. Главы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стран АСЕАН решительно осудили провокационные действия Пхеньяна, которые выразились в проведении испытани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4 и 28 июля, предыдущих запусков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и двух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в 2016 году. Они заявили о решите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полной, поддающейся проверке и необратим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звав все стороны к сдержанности. Министры подчеркнули важность создания условий, способствующих диалогу.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Кан Гён Хва высоко оценила результаты форума,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политика Сеула получила поддержку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уды РК рассматривают иски 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м труде в Японии

8 августа окружной суд города Кванчжу принял часть требований о выплате компенсации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Mitsubishi Heavy Industries.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уд вновь поддержал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 Японию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н, в частности, постановил, что корпорация должна выплатить Ким Ён Ок, одной из жертв, оставшихся в живых, компенсацию в размере 106,5 тыс. долларов, а также некоторые средства семье скончавшейся жертвы Чхве Чжон Ре. Корейцы отправлялись в Японию под разными предлогами, в том числе под видом обучения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Однако их направляли на военные заводы, шахты и другие подобные объекты,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выплачивая денег. Ким Ён Ок и Чхве Чжон Ре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в Японию в 1944 году. Они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были обмануты обещаниями о том, что там они смогут учиться и заработать денег. В итоге они трудились на авиационном заводе Mitsubishi Heavy Industries, не получая ни копейк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уд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ражда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было пода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4 исков в отношении японских корпораций, использовавших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труд корейцев. Нынешний иск также был поддержан одной из та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ая помогла подать три иска. Во время подачи первого иска в 2015 году суд второй инстанции принял сторону истцов.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жидается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Первое слушание по второму иску намечено на 11 августа. Нынешнее судебное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 третье по счёту. Ожидается, что Mitsubishi Heavy Industries подаст апелляцию. Проблема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ряду с сексуальным рабством, является серьёзным нарушением прав челове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влекает внимание к Олимпиаде в Пхёнчхане

19-20 августа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Сеуле пройдет мероприятие «Бобслей в городе – зимняя Олимпиада в Пхёнчхане 2018». Оно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сеульской мэрией. На площади будет построена водная горка длиной 330 метров и высотой 22 метра. Спуститься на ней можно будет на специальных одноместных санях или бобах.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роли бобслеиста сможет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будет подать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заявку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павильон, посвящённый олимпийским и параолимпийск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В июле 26,92 млн. жителей РК имели работу

Численность работающих жителей Р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июля составила 26 млн. 920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313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составил 61,5%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0,3%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среду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заняты около 4,5 млн. человек, что на 50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в ию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составил 3,5%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хранив уровен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уменьшившись на 0,3%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Безработица среди молодёжи до 30 лет составила 9,3%, что на 0,1% больше, чем в ию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о на 1,2%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месяце. Занятость среди д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составила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43,8%. (RKI)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РЕПАТРИАЦИЯ КОРЕЙЦЕВ ИЗ ЯПОНИ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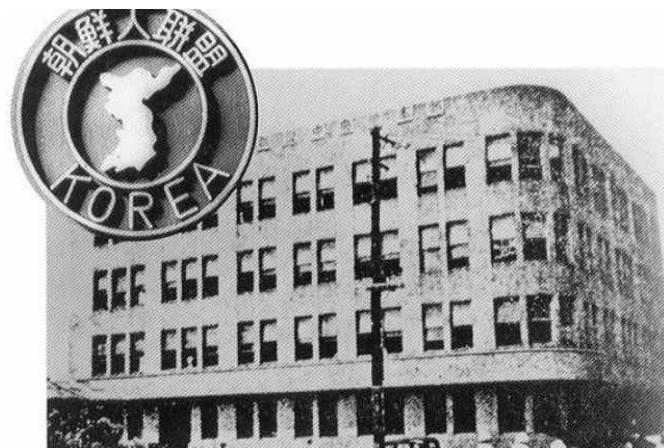


1960年 2月 26일자, (하)1975년 4월 19일자 귀국사업 을 지지하는 내용의 '아사히신문' 기사

После 4-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репатриация вновь началась в 1971 г., но в более малых масштабах. Всего к 1976 г. 92,749 человек были репатриированы. Среди отправленных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оказались также около 6,600 японцев, в основном женщин, вышедших замуж за корейцев и детей, записанных японцами и 7 китайцев. В 1984 г.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репатриантов согласно японским данным составило 93,339, т.е. за 12 лет всего около 600 человек. Формально репатриац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но желающих отправиться жить на Север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патриация корейцев, бурно начавшаяся в самом конце 1950-х годов, резко снизилась до 1-2 тыс. человек в год в 1960-х гг., затем упала до нескольких сотен в 1970-х и до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ов человек в 80-х годах.

Поскольку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в Японии прибыли из южных провинций, то их переезд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е был репатриацией,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что Север и Юг стали отдель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хотя и происшедшими из того, что считалось одной страной с единой нацией. Именно в этом смысле термин «репатриация» - «квигук» (kwiguk -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и ак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этого термина несет в себе поли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Интерес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японский Красный крест использовал иной термин «хикияге» (hikiage), который можно перевести как «репатриация», но и как «эвакуация» или «выселение». Оппоненты "Чхонрёна", миндановцы (재일본대한국민단), называли репатриацию на Севере «пуксонг»- (puksong), что означает «отсылка на Север». Если «хикияге» подразумевает движение людей назад к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что не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о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то «пуксонг» содержала коннотацию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принуждения типа депортации, как будто репатриантов посылали на Север против их воли. «Чхонрён»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использовал термин «квигук», хотя технически это не было возвращением на родину в плане места происхождения. Однако, учитывая, то что «Чхонрён» называ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матерью-родиной», исход корейцев из Японии можно закон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репатриацию.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의 창설

В течение двух послевоенных десятилет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считало, что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корейцев в Японии, попадают в сферу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пример, оно отказалось принять корейцев, подлежащих депортации, вследствие чего задержанные находились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е время в переселенческих лагерях на Юго-Западе Япо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 япон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о гражданстве одинаково основывались на принципе родства по отцовской линии, а не по месту рождения или материнской линии. Исходя из этой позиции, можно считать, что корейцы, чь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по отцу относилось к Южной Корее, потенциально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бо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о на практике,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уделяло внимания оставшимся в Японии корейцам, полагая, что они сделали свой выбор, не вернувшись на Юг с основной волной официаль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против, постоянно утверждало, что корейцы в Японии являются ее гражданами и поощряло их репатриац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ежим, использует репатриацию корейцев из Японии в качестве козыря в своей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борьбе, как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преимущества своей страны и проводимой ею политики. 16 декабря 1999 г. в Пхеньяне и Токио прошли торжественные заседания в честь 50-летия «великого исхода нации из капитализма в социализм». «Нодон синмун» в своей передовой статье писала, что репатриация корейцев является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человечества 20 века», олицетворяющей «великую победу бессмертных идей «чучхе» отца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Ким Ир Сена» и т.д.

Ким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д.и.н., профессор,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держи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ососевых рыболовных заводов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а группа экспертов, в чьи обязанности входит изуче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Ее руководитель –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Нестеров – отметил, что оно полностью отвечает политик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мпания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 ведет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рыболовных заводов, один в бухте Консервной, второй – на ручье Минеральном. Вместе они будут выпускать 40 миллионов мальков кеты. Первая закладка икры на инкубацию состоится осенью текущего года.

Инвестор имеет большой опыт реализации таких проектов, отметили эксперты.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компания за счет соб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построила шесть лососевых рыболовных заводов. Их общая мощность – 188,1 миллиона мальков. Например, на заводе на реке Янкито используется уникальная технология подраживания. Здесь молодь выпускают в бассейн, в котором смешивается морская и речная вода. Этот метод позволяет добиваться больших привесов молоди. А завод в бухте Оля вообще не имеет естественного водотока.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о стороны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могут быть разными, – сказал Дмитрий Нестеров. – Возможно, мы возместим компании часть затрат на по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или на капитальные вложения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ти вопросы будут решаться коллегиаль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ующ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званы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Лучший по профессии»

Итог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одведены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ласти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й трехсторонней комиссии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оциально-трудовых отношений.

В этом году за право называться лучшими состязались сварщики, работающие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ЖКХ, электромонтеры 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х сетей Сахалинэнерго, а такж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и – монтеры пути. Всего 28 человек с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ак отметила, подводя итоги конкурса, руководи-



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Татьяна Бабич, в этом году он традиционно состоял из теоретической и практической частей. Сварщики, к примеру, получили заготовки, сварочные аппараты, для каждого было оборудовано отдельное рабочее место с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материалами. Через 2 часа готовые изделия уже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али члены экспертн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и выставляли свои оценки.

Конкурс электромонтеров также всегда интересное и зрелищ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площадке участники выполняли работы на высоте, тушили пожар на трансформаторе, освобождали «пострадавшего» от действия электрического тока, проводили реанимацио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Трудно было определить лучшего,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Монтеры пути оттачивали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на одном из участк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 рассказала Татьяна Бабич.

Торжественную церемонию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ве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добные состязания привлекают внимание к данным профессиям,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высокое мастерство ценится и всегда востребовано у работодателей.

Известно насколько остр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ит вопрос рабочих кадров. Развиваетс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активными темпами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еформируется система ЖКХ. Меропри-

тия такого уровн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вышение престижа рабочих профессий, привлечение молодеж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секторы экономики, – подчеркнул в своем поздравлении Антон Зайцев.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сварщик» диплом за первое место получил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й коммунальной компании» Виктор Озолин. Вторым ст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дприятия «Тепло» Константин Едигаров, за третье место диплом был вручен сварщику из «Невельских коммунальных сетей» Владимиру Котеневу.

«Лучшим электромонтером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х сетей» признан Ли Мен Сок, занявший первое место, второе место у Романа Токарева из Углегорска, третье занял Роман Савенков из Тымовск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и Станислав Давыдов из Поронайска, Альберт Зиновьев и Денис Сложнев из Холмска стали лучшими монтерами пут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учрежденный Минтрудом России, проводи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жегодно уже 6 лет. За эти годы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лучшие в таких профессиях как: газосварщик, штукатур, водитель автобуса, портной, швея, электромонтер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х сетей, проводник пассажирского вагона, машинист маневрового тепловоза.

Готовность основных систем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к новому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ценили на 66 процентов

Такие данные были озвучены на заседании оператив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штаба, который курирует эту работу.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предприятий коммунальной сферы и энергетики, контролирующих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главы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Работ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предстоящей зиме сейчас продолжаются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В планах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224 котельные, эта задача выполнена на 70 процентов. Заменено почти 19 километров тепловых сетей и почти 26 километров – водопроводных. Готовность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центральных тепловых пунктов оцениваем на 78 процентов, резервных дизель-генераторов – на 80, а жилого фонда – на 70. Паспортизировано 3615 домов из 5367, – сообщил Дмитрий Зайцев,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ют формировать 45-ти суточный запас топлива. На склады уже завезено почти 26 тысяч тонн угля (из 93 тысяч тонн планируемых) и более 1 тысячи тонн жидкого горючего (при плане 2,5 тысячи тонн). Самые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куда доставлено 100 процентов жидкого топлива и 75 – твердог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апасными источниками энергоснабжения оборудованы все котельны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а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материального резерва к новому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В частности, Сахалин впервые получил передвижную дизель-генераторную установку большой мощности – 550 киловатт. Ее энергией в случае нештатной ситуации можно обеспечить село или микрорайон города. Помимо этого приобретены стальные трубы различных диаметров общей массой 163 тонны и полиэтиленовые – длиной 6 километров. Идет закупка 10 водогрейных котлов и другого запас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котельных.

Перед главами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на совещании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взять под личный контроль ход подготовки к зиме. Оценку действиям местных чиновников в той или иной ситуации могут дать и жители.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телефона «горячей линии» при област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 469-331.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ширяю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улучшения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В области вводятся новые прави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выплаты на эти цели. Поправки к региональному закону в первом чтении сегодня были приня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Напомним, многодетные родител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ейчас вправе получить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социальную выплату – до 50 процентов от стоимости приобретаемого жилья или расходов на 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азмер так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составляет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каждую семью.

Предлагается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выплаты и тем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которые ранее у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скажем,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или бюджетников, – сказала Татьяна Алексашин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бласти. – По нашим расчетам, в резуль-

тате принятия поправок к закону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ателей увеличится на 30.

Кроме того, право на социальную выплату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осстановлено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многодетных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на бесплатной основе получили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Эта мера, также поддержанная депутатами, поможет семьям ве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жилых домов.

Приняты очень значимые решения для поддержки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ширен перечень получателей социальной выплаты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Решен вопрос и о том,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е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тем семьям, которым ранее передали в безвозмезд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Имея такой капитал, гораздо проще приступить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обственного дома или решиться на участие в жилищном кооператив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тоги думского заседания депутат Евгений Лотин.

Добавим,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свыше 120-ти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касаются многодетных. Таковых в регионе более 5 тысяч. К примеру, благодаря компенсационным выплатам,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семьи, в которых 5 и более детей уже смогли улучшить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А с этого года они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получение до 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для покупки автомобиля. Более того, многодетные, решившиеся на четвертого малыша и нуждающиеся в расширении жилплощади, также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сумму на покупку квартиры – в среднем около 6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семью.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одолжают действовать ежемесячные денежные выплаты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полноценным питанием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трех лет и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а также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без учета доходов семьи. Введен ряд новых льгот для семей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дов. Среди них – адресная поддержка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в размере д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а такж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корзина на семью 1 раз в квартал.

Все пенсионер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лучат по пять тысяч рублей в связи с 70-летием области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будут произведены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Их получат 167 тысяч пенсионеров, которые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Как уточн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заявления подавать не нужно. Деньги выплатят в августе по месту получения пенсий либо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Такж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для пенсионеров отдельных категорий, а именно детей войны, неработающих ветеранов труда и ветеранов тру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тановлена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денежная выплата в размере 2500 рублей. Ее получают более 60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бязательные условия – постоя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сутствие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иностр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Если получатель относится к категории детей войны,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имеет звание «Ветеран труда» и (или) «Ветеран тру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умма выплат составит 5000 рублей, – сообщила Татьяна Алексашин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это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выплаты пенсионерам, отнесенным к категории детей войны, заявление подавать не нужно. Такой документ должны оформить только неработающие пенсионеры – ветераны труда и ветераны тру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с заявлением в отде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К заявлению необходимо приложить след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 паспорт получателя;
-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постоя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спорт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отметкой о регистраци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решение суда, подтверждающее факт прожи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трудовая книжка либо иной документ с последнего места работы о том, что он не осуществляет работу и (или) и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детей войны);
- пенсион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 реквизиты креди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 лицевого счета (банковской карты), открытого(-ой) в российской креди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сположенно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ко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оверенные лица) получате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едставляют копию документа, подтверждающего их статус и полномоч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естиваль дружб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2017

в честь 27-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20.08.2017, 16:00
ТДЦ «Столица» (Конгресс-холл)

◇ Организато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Владивостоке

◇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камерный ансамбль «Дивертисмент», ДШИ «Этнос»),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школа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Хан Уллим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Ким Док Су)

◇ Спонсоры: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Пусан,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авиакомпании Асиана Эйрлайнс на Сахалин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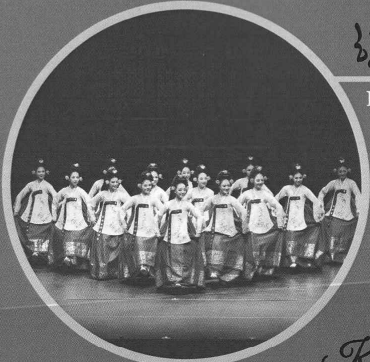
• Бесплатные билеты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20.08.2017г. с 13:00 на 3 этаже ТДЦ «Столица»(Конгресс-холл).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2017 사할린 한·러 우호 축제

한·러 수교 27주년 기념

사할린 <스톨리차>비즈니스 센터(콩그레스 홀)

8. 20(일) 16:00



한국과 러시아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школа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дворец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сохранение и креа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Единственная школа в регионе, имеющая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 ДШИ «Этнос»



클래식과 팝의

◇ Исполнительница главных партий и солистка ведущих европейских опер, обладательница приза «Лучший музыкант» от Союза искусствовед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сопрано Пак Сонг Хи!

◇ Выпускник аспирантуры Московской консерватории им.П.И.Чайковского, обладатель орденов Президента и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и исти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 бас И Ён Сонг!

◇ Мировые голоса под великолеп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известного на Сахалине камерного ансамбля «Дивертисмент»



Классика и Поп-танцы

Лучшая в г.Пусане группа уличного танца, подготовившая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конце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в котором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музыка сольется с танцем хип-хоп – группа Ballast street!



어울림 в гармонии

Самульнори,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й ликующие настро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более живо, чем какое-либо другое направление музыки! Коллектив самульнори «Хан Уллим»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снователя самульнори Ким Док Су, превратившего концерт четырех инструментов (квентвари, джангу, бук, джинг) из имени собственного в нарицательное!



Насладитесь прекрасными мелодиями прошлого и настоящего Кореи и России!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4

시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대화 Dialog

이리나: 안드레이 씨, 시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교수님께서 시조가 무엇인지 알아 오고 유명한 시조를 하나 정도 외워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조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시조가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안드레이: 시조는 고려시대 말부터 발달한 한국 고유의 정형시예요.
'시절가조(時節節歌調)'의 줄임말로 이 시절의 노래라는 뜻이지요.

원래는 악곡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후대에 와서 시의 형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일반화 되었지요.

이리나: 잘 보셨어요. 시조의 형식은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되어 있고, 한 장은 두 구씩, 각 구는 두 마디씩으로 짜여 있어요. 한마디는 보통 석 자나 넉 자로 되어 있으나, 모든 시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종장 첫 구의 앞마디는 주로 석 자로 하고, 뒷마디를 다섯 자 이상으로 하여 운율의 변화를 주었어요.

이리나: 시조는 주로 누가 어떤 내용을 지어 불렀나요?

안드레이: 시대나 환경에 따라 지은이나 내용도 달랐어요. 초기에는 주로 선비들이 지어 불려서 당대 정치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지요. 점차 시대가 안정되어 가면서 교훈적인 내용의 시조가 쏟아져 나왔고 사랑을 노래한 시조도 나오게 되었어요. 조선 후기에 이르러 평민들이 시조를 부르기 시작하면서는 좀 더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내용도 나타났고, 시조의 형식도 다양해 졌답니다.

새로 나온 단어 Новые слова

시조- трёхстишие, сичжо; 정형시-стандартная форма стиха; 초장-первая строфа сичжо; 중장-вторая строфа сичжо; 종장-третья строфа сичжо; 운율-размер, ритм; 선비-ученый; 건국-осн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격변기-переворот, 지식인-образованный человек; 훑어보다-просмотреть.

문법 Грамматика

Лингвистика. Транслитерация.

Способ записи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слов знаками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외래어 표기법

В 1986 год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ыли утверждены правила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слов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외래어 표기법).

1. Все заимствованные слова записываются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 помощью 24 гласных и согласных букв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звуков, которых нет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пециальны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наки не разрабатывались. Это значит, что запись звуков, которых нет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помощью действующих знаков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2. Каждой определенной фонеме заимствованного слова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дин определенный знак.

Например, звук [ф] отсутствует в фонет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еоретически, для его обознач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такие литеры, как ㅍ или ㅎ.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е было путаницы, правила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определяют один знак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звука [ф] - знак ㅍ.

3. В падчиме (конечной позиции слога)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слов может быть записан только один из семи согласных: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Это правило одновременно исключает употребление двойного падчима при записи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слов.

Звук [т] в падчиме обозначается литерой ㅈ.

커피숍 (coffee - shop); 슈퍼마켓 (supermarket); 케이크 (cake); 핫라인 (hotline); 초코릿 (chocolate).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Едино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размере стоимости приобретаем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редства, но не более 1млн рублей. Приобрести за счет выплаты можно легковой автомобиль либо микроавтобус, выпущенный не более 10 лет назад. Также в нем должно быть не менее 6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включая место водителя.

Едино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имеющим пятерых и более детей (в том числе усыновленных, но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приемных и опекаемых) до 18 лет, либо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23 лет,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очной форме обучения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читываются также дети от предыдущих браков родителей и рожденные (усыновленные) вне брака, если до обращения за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выплатой брак супруг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и все дети проживают и воспитываются в этой семье.

Для назначения выплаты определен ряд условий. Все члены семьи должны иметь росси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 прожива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 дети, в том числе усыновленные, должны быть рожде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В числе обязательных требований - отсутствие 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членов семьи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и наличие у кого-либо из них водительск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Если в отношении хотя бы одного ребенка родители лишены или ограничены в р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ах, а также, если дети находятся на пол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обеспечении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исключение - временное пребывание ребенка-инвалида из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и в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учреждении), на данную выплату семья не может претендовать.

Для получения выплаты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отделения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заявлением.

사할린, 1920년 인구조사에 대한 책 편찬

사할린주역사문서보관소 직원들이 1920년 남사할린 인구조사 결과물의 편찬을 준비했다. 이 책은 일본 가라후토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한 역사적 시점을 공표하고 있다. 1920년 10월 1일 진행된 가라후토 시기의 인구조사는 일본제국의 첫 인구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런

조사 가운데 얻은 가라후토 관련 정보는 별도의 2 권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들은 주 역사고문서 보관소가 소장하고 있다.

남사할린 인구구성에 대한 기본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첫째 기록물을 선정해 출간하게 되었다. 책의 내용 구성은 총인구수와 가구 수, 성과 연령, 가족사항, 취업, 출생지와 등록지, 원주민·한인·외국인의 인구수 등이다. 모든 기록정보는 1920년 10월 남사할린 주거지별로 분류돼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소련체제의 행정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변경된 이름으로 그들 중 대부분은 지속적인 생존을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이 출간물에 반영되어 있다.

이 출간물은 역사전문가, 지역연구전문가, 사할린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편찬되었다고 주 역사고문서보관소 홍보실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издадут книгу о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20 года

Сотрудни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или к изданию материалы результатов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1920 года.

Книга представляет публикацию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базовых источников по истории япон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арафуто. Перепись проводилась в рамках первой всеобще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1 октября 1920 года. Полученные в рамках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данные по губернаторству Карафуто были изданы отдельно, в виде двух тетрадей, экземпляры которых хранятся в областном госархиве.

Для публикации была выбрана первая тетрадь, содержащая основные сведения о структуре насел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и количество домохозяйств, половозрастной состав, семейное положение, занятость, место регистрации и место рождения населения,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и иностранцев. Все данные распределены по населённым пунктам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октябре 1920 года. Многие из них продолжили своё существование 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ключённые после своего переименования в советскую систему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 -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деления. Э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также нашло отражение в публикации источника.

Издание п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историков, краеведов и всех,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а, информирует пресс-служба госархива.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광고

8월 11일(금)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 위치한 사할린한인 이중징용광부 피해자비 앞에서 동포희생자 추모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사할린한인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 서진길 회장

РООСК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Двойная вербовка»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освященном 10-летию со дня установления мемориала шахтерам-жертвам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ся **11 августа 2017 г. в 11.00**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광복절 기념행사

2017년 8월 1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광복 72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명절 행사 프로그램:

10시-10시 30분 -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남부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자 영예기념종합 기념관에 헌화.

11시 - 13시 -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광복 72주년 기념행사 개막, 공연프로그램에는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리리 강원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가 참가한다.

14시-17시 - 스포츠게임, 오락프로그램, 씨름, 춤, 대중놀이, 노래콩쿨.

광복절 기념행사조직위원회

19 августа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тся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72-о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В программе:

10.00—возложение венков к Вечному огню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11.00-13.00.—открытие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ы,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популярного певц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Ли.

14.00-17.00—спортив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массовые гуляни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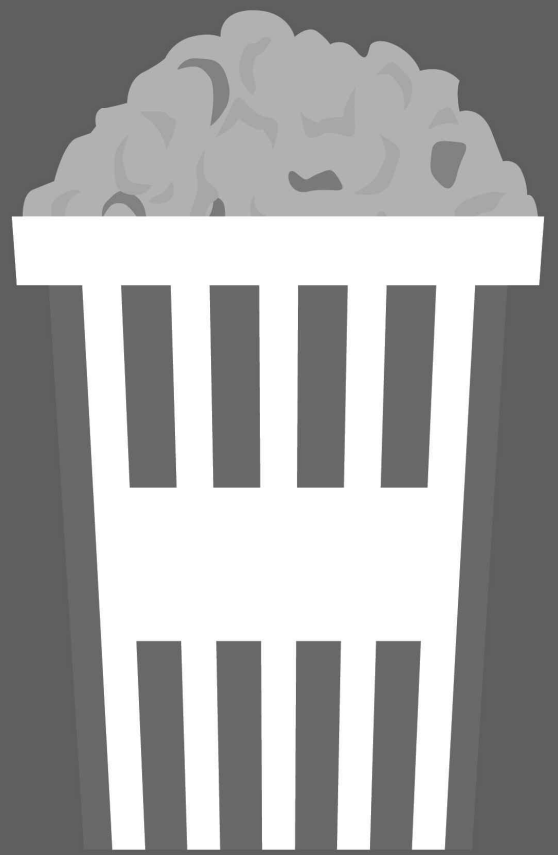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